Shakespeare의 <*As You Like It*>(1599)

1) 1576년 영국 최초의 극장 The Theatre가 James Burbage에 의해서 설립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테임즈강 남쪽(southbank, sourhwark)에 세워진, 셰익스피어가 가장 깊이 관여했던 글로브극장(The Globe, Globe Theatre)이 1599년에 세워졌는데, 이 극장의 모토는 totus mundus agit histrionem 이었고, 이 극장이 설립되면서 처음 공연했던 작품이 바로 As You Like It 이었다.

DUKE SENIOR This wide and universal theatre
Presents more woeful pageants than the scene
Wherein we play in.

JAQUES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His acts being seven ages. At first the infant,
Mewling and puking in the nurse's arms.
And then the whining school-boy, with his satchel
And shining morning face, creeping like snail
Unwillingly to school. And then the lover,
Sighing like furnace, with a woeful ballad
Made to his mistress' eyebrow. Then a soldier,
Full of strange oaths and bearded like the pard,
Jealous in honour, sudden and quick in quarrel,
Seeking the bubble reputation
Even in the cannon's mouth. And then the justice,
In fair round belly with good capon lined,

With eyes severe and beard of formal cut,
Full of wise saws and modern instances;
And so he plays his part. The sixth age shifts
Into the lean and slipper'd pantaloon,
With spectacles on nose and pouch on side,
His youthful hose, well saved, a world too wide
For his shrunk shank; and his big manly voice,
Turning again toward childish treble, pipes
And whistles in his sound. Last scene of all,
That ends this strange eventful history,
Is second childishness and mere oblivion,
Sans teeth, sans eyes, sans taste, sans everything (Act II. Sc VII)

2) 셰익스피어의 극작 단계 중 2기(the balanced period)는 흔히 희극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그의 대부분의 희극들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작품들로서는 <한 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Shrew)>,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 등이 이 시기에 나왔다.

3) 희극의 정신은 축제의 정신(festive mood)을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화해(reconciliation)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항상 집단적(social)인 모습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계가 탄생된다.

4) 희극의 리듬: 도시----> 숲/섬 ----->도시(수평적)
비극의 리듬: 높은 신분-----> 시련 ------>추락 (수직적)
희극의 주인공은 젊은 연인들이다. 이들의 도피의 길과 궁극적인 행복의 쟁취가 이 운동의 주축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방해꾼이 등장하는데, 이는 주로 부모들이나, 권력가들이다.(<한 여름 밤의 꿈>과 잘 병치되는 구조)

5) 1막의 중요성: 궁정과 시골생활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궁정: 문명화된 무대, 시기와 찬탈, 불의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

형의 자리를 찬탈한 공작 프레데릭

형의 딸, 로잘린을 추방하려는 삼촌

<백성들이 그들의 덕망을 찬양하고, 좋은 아버지 때문에 그녀에게 동정하는 것(1.2)/ 그녀의 부드러움, 그녀의 침묵과 참을성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백성들이 그녀에게 동정심을 갖는다(1.3)>

동생, 올랜도를 이유없이 구박하는 형, 올리버

<까닭없이 그놈이 원수처럼 미우니, 그런데 사람됨은 점잖거든, 배우지는 못했지만 유식하고 식견을 갖추었어. 모든 사람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 부하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난 그만 납작해지고 말았지 뭐야(1.1)>

숲: 도시의 인습, 전토, 권위,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사랑의 도피처, 시련을 해결하는 학교와 같은 역할. 그러나 숲이 반드시 이상향은 아니다. 그 나름으로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 숲속에서 사는 목자들의 힘든 겨울나기, 동생으로부터 쫓겨온 공작이 숲에서의 사냥으로 숲의 질서를 파괴하는 점 등

씨름꾼 챨스가 전 공작의 추방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1.1) < 떠도는 말인 즉, 벌써 아덴숲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수 많은 재미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요. 옛날 영국의 저 로빈후드처럼 거기서 살고 있다지 뭡니까? 젊은 신사들이 숱하게 모여들어 걱정없이 태평세월을 즐긴다나봐요>

늙은 목자 코린에게 터치스톤이 하는 말(3.2) <그래, 이 생활은 그 자체로서는 참 좋은데, 목자생활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활이 외롭다는 것은 나도 좋아 그러나 아주 쓸쓸해서 틀려먹었어. 전원생활이라는 점은 마음에 드는데, 궁정생활이 아니라서 지루하단 말이야. 검소한 생활이라 내 기분에 꼭 맞지만 풍족하지 못한

생활이라 배가 고파 탈이야>

6) 결말: 4쌍의 결혼: 올랜도와 로잘린, 개과천선한 올리버와 실리아, 실비어스와 피비, 터치스톤과 오드리

---

7) 지금까지의 이 극의 평가는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들 중에서 햄릿과 더불어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로잘린이 남장을 하고 숲으로 가서, 모든 사건과 인물들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는 그녀의 행위와 의식이 이 극을 이끌어가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첫째, 로잘린이 숲으로 간다는 면에서 이 극의 장르에 대한 관심이 도출된다. 즉 목가문학(pastoral)의 기준으로 이 극을 평하려 한다. 그리이스의 테오크리투스로부터 시작하는 궁전/도시와 전원의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로마의 버질에서부터 시작되는 목가문학적 전통을 다르고 있다. 숲도 나름대로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다.(숲의 생활에 만족하는 전 공작, 숲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비판하는 제이퀴즈, 전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코린, 궁정생활을 그리워하는 터치스톤, 올리버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도사리는 곳)

둘째, 로잘린이 남장(cross-dressing, transvesite)을 하고, 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비평이다. 남장이야 말로 당대의 여성들이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의도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또 여기에 당대의 연극관습과 사회적 성 이데올로기가 연관되어, 남자매우---여자역할(로잘린)---남장(게니미드)의 함수관계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측히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도출된 견해는 남장을 한 로잘린이 여성으로서 주변인물들을 계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성위주의 사회를 전복, 해체시키고, 여성을 정체성을 고양시켰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결국 로잘린이 남성인 게니미드로 변장을 해서야 만이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고,

나아가 본질적으로 로잘린 역할을 남자매우가 연기했다는 극적관습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여성을 정체성을 더욱 유지, 강화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성 이데올로기의 전복의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로잘린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평가늘 내리기도 한다.

---

8) 극 전체를 아우르는 사건은 "로잘린이 남장을 하고 숲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다신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극의 시작:

로잘린이 숲으로 간 까닭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숙부의 갑작스러운 폭압을 피하고자 함이다. <이봐라. 빨리 너의 짐을 챙겨서 이 집을 떠나거라. .... 너는 앞으로 열흘안에 우리 집에서 이십마일 밖으로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없다(1.3)>---> 로잘린에게 이 상황은 숲으로 가야하는 현실적인 명분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샌더나 허미아처럼 사랑을 이루기위한 도피도 아니고,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마술로 나쁜자들을 계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섬도 아니다. 순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피는 앞으로 극을 이끌러 갈 수있는 뚜렷한 동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로잘린이 아버지를 찾아 아덴숲으로 가는 방편으로 택한 남장이라는 극적 기법은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의식의 연장이다. 그녀는 남장을 해야한는 이유를 <아니야, 처녀의 몸으로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해. 미인은 황금보다도 더 쉽게 도둑의 마음을 동하게 한단 말이애(1.3)>라고 말하자, 실리아는 <나는 허름한 옷에다 얼굴에 흙칠을 해야지. 언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악당들에게 전혀 겁탈 당하지 않고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거야(1.3)>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단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방편으로서의 남장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셰익스피어의 극속에서의 변장은 그 나름대로 극을 진행시키니 위한 목적을 가진다. 바이올라의 남장은 잃어버린 오빠 세비스챤을 찾고, 올시노공작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며(십이야 Twelfth Night), 포샤와 제시카의 남장은

재판관으로 위장하여 위기에 처한 애인을 구하기 이한 방편으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The Merchant of Venice), 이는 곧 극을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로잘린의 남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 어떤 목적성을 띄고있지 않으므로 극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녀의 남장이 극을 진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기존의 비평은 숲으로의 도피를 준비하는 과정(궁정에서의 에피소드)에 대한 고려를 생략한 채 단지 숲속에서의 에피소드에만 관심을 집중한 결과이다.

9) 공간이동의 조건: <폭풍(The Tempest)>, <한 여름밤의 꿈>. 등장인물들의 미숙한 의식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의식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잘 적응하게 하는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미숙한 인물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변화의 학교와 같다.
그러므로 숲이나 섬으로 가야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던지, 아니면 사악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전자의 인물들은 <한여름 밤의 꿈>의 네명의 젊은이들이고, 후자의 경우는 <폭풍>에서 형 프로스페로의 자리를 찬탈한 안토니오와 세바스챤 일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덴숲으로 가야만 하는 로잘린은 이런 정신적 미숙성도, 사학함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떳떳하다.
사촌동생 실리아는 미숙성이 보인다: 언니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백부와 바꾸자고 투정하는 유아적인 사고. 심지어 숲으로의 도피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로 인식.
반면, 로잘린의 경우는 이런 실리아와의 대화에서 쫓겨가야만 하는 이 현실과 올랜도와의 갑작스런 사랑으로의 고뇌를 <실리아: 그게 다 큰아버지 때문이잖아?/ 로잘린: 그렇지도 않아. 내 미래의 아이 아버지 때문인 것도 있어. 아, 왜 매일 나는 이렇게도 가시덤불 투성일까>(1.3)>,
또 숙부와의 대화에서, <부탁이예요, 숙부님. 내가 저지를 죄가 무엇인가 알고나 떠나고 싶어요..... 숙부님! 반역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제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니까요.(1.3)>---> 논리성과 대담성, 심지어 영악함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녀가 왜 변화의 학교, 숲으로 가야만 할까?

극의 끝

과연 그들은/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극의 말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하이멘(Hymen)이 이 극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상한 사건"(these most strange events. 5.4)이라고 말한 만큼이나, 그 결말 역시 우리에게 의혹을 남긴다. 즉 결말이 너무 독단적이고 셰익스피어의 의식적인 인위성이 너무 드러난다. 이 말은 극의 결말이 인물들간의 적절한 인과를 적용시켜 우리에게 설득력을 제공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전 공작의 말대로 "이 숲에서 잘 시작해서 잘 맺어진 사랑에 결말을 지읍시다(5.4)"라고 말하여 희극의 공식을 따르고는 있으나, 그들의 결혼이 과연 잘 된 것인지, 그리고 희극이 우리의 은밀한 욕구 충족의 원리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 결혼들이 무리가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네 쌍의 결혼 중 3막에서 이미 시작되어 가정 빠르게 맺어진 터치스톤과 오드리의 경우, 그 시작은 전적으로 터치스톤의 사기성에서 비롯되었다. 애초부터 그들으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 터치스톤은 자신의 궁정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순진무구한 처녀 오드리를 그 특유의 달변으로 압도하여 그녀의 환심을 사려한다. 그러나 진작 그의 속셈은 올리버 목사를 주례로 할 적에 드러난다.

<(방백) 다른 목사보다는 이 사람보고 주례를 부탁하는 것이 좋아. 이 목사는 정식결혼을 시켜주지 않을테니. 정식결혼을 안해야 나중에 여편네를 버릴 때 떳떳할 것 아닌가.(5.3)> 여기서 터치스톤이 오드리를 버릴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그가 궁정생활을 그리워하고, 또 전 공작과 더불어 숲을 나가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결혼이 과연 긍정적인가? 또 그는 극 전체에서 한번도 오드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의식이 변화되거나 성숙했다는 증거도 없다.

피비와 실비우스의 경우는 전적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만남이었다. 피비는 실비우스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단지 게니미드만 바라보면서, 그를 애태웠다. 그러나 진작 그 결혼의 성사는 피비의 의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게니비드로 분장한 로잘린과의 약속의 결과였다. 피비가 자신이 약속에서 진 것을 안 순간 그녀는 실비어스에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이젠 당신의 사람이니 성심성의껏 받들께요. 당신의 진심이 저의 사랑을 당신과 맺어주었어요.(5.4)"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게니미드(로잘린)와 자신의 게임에 따라서 실비어스는 단지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또 자신의 사랑이 실비어스의 진심을 이해했다는 근거가 없고,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을 실비어스에게 주겠다는 말을 믿어도 될는지는?

실비아와 올리버의 결혼은 로잘린이 가장 경계했던 사랑방식이다. 로잘린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막연한 환상과 상대에 대한 이상화를 경계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보는 사랑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잇는 지혜를 요구한다. 그런데 실리아와 올리버는 처음으로 만나자 마자 서로 연심을 품고, 그들 나름대로 사랑의 병을 앓는다. 드른은 서로에 대해서 이래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야말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으 갑작스런 사랑의 병에 대해 올랜도와 로잘린 마저도 놀랄 지경이다.
<올랜도: 그럴수가 있어?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다니. 첫 눈에 사랑을 느껴요? 사랑하자마자 구혼해요? 그리고 그 구혼을 여자고 받아들이더란 말이지요?(5.2)>
<로잘린: 글쎄 당신 형님과 내 누이동생은 만나기 무섭게 서로 뜨거운 눈길을 주더군요. 그리고 눈길주기가 무섭게 사랑하데 됐고, 사랑하기 무섭게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더군요.(5.2)>

로잘린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사랑은 심사숙고되지 않은 결합이며, 좀 더 성숙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 많은 시련에 봉착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는 미지수이다.
올리버의 전원생활과 실리아의 암묵적인 동의는 과연 있었을까?

로잘린과 올랜도의 결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로잘린이 올랜도의 관념적인 사랑을 질타하고 교화하려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잘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의 낭만적인 사랑을 공박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도시세계로 즐겁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추방된 동안 숲에서 배운 것들 덕분에 모두 변화되었다고 평하는 셰익스피어비평의 대가 앤 바튼의 견해는 재고해야 한다.